

기획처·재경부, '27년 예산편성 여건 점검 '27년에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 견지

-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27년 경제 동향과 세수여건 면밀히 점검
-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영 방향 논의
- 성과중심 재정 혁신을 위한 예산-결산 환류체계 강화에 공감대 형성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4월 2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모여 중동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27년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회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로서 향후에도 양 부처간 예산편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소통 채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 >

- ▶ 일시 : '26.4.21(화) 10:30 ~ 13:00
- ▶ 참석 :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장
(재경부) 조세총괄심의관, 국고정책관, 종합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먼저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은 다음 해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AI 등 산업 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OECD('26.3)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실질소득 약화와 긴축적 금융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면서, 세계 GDP는 충격 2년 차에 약 0.5% 감소할 우려"

이어진 논의에서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절차가 완료되고 있어, 결산에서 지적된 성과 미흡 또는 집행 부진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과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간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기획처와 재경부는 경제전망 및 세입 여건 등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담당자	서기관	하치승 (hcs017@korea.kr)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10)
		담당자	서기관	최봉석 (bongseckchoi@korea.kr)
	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시훈 (044-215-2830)
		담당자	사무관	이병준 (junylee94@korea.kr)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	책임자	과 장	김성수 (044-215-4120)
		담당자	사무관	구본녕 (kbn88@korea.kr)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동영 (044-215-5110)
		담당자	사무관	김동연 (yanidong@korea.kr)